



# ‘축구의 신’ 메시 월드컵 우승 한 걸음 남았다

## 아르헨, 메시 1골 1도움 활약 ... 크로아티아 3-0 꺾고 결승 진출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월드컵 우승에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뒀다.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3-0으로 완승, 결승에 선착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페널티킥으로 결승 골을 터뜨리고 후반 24분 훌리안 알바레스(맨체스터 시티)의 췌기 골을 어시스트하며 결승 진출에 앞장섰다. 이로써 그는 2014 브라질 대회 이후 두 번째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메시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의 상징인 발롱도르를 7차례나 받고 소속 팀에선 수도 없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영광의 순간을 솔하게 맛봤으나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작아졌다.

8년 전 브라질 대회의 준우승이 메시가 있는 동안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었다. 이 외에 메시지를 보유 하기도 결승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자국 출신의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 브라질의 영웅 펠레 등과 더불어 기량면에선 ‘역대급 선수’로 평가받고 ‘축구의 신’으로 불리면서도 월드컵 우승 경력이 없는 점은 이들의 비교에서 약점으로 지적됐다.

크로아티아의 중원 사령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와의 ‘라스트 댄스’ 대결이 벌어진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메시가 각종 기록과 함께 클래스를 입증하며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메시는 자신의 25번째 월드컵 경기에 나서며 로타어 마테우스(독일)와 이 부문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 34분 알바레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강하게 차 넣으면서 이번 대회 5번째 골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파리 생제르맹)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르고, 월드컵 통산 11호 골로 역대 공동 6위가 됐다.

특히 월드컵 본선 11골은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로는 단독 1위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 경기까지 메시는 1991~2002년 아르헨티나 대표로 활약한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와 10골로 어깨를 나란히 해오다 이날 그를 넘어섰다.

후반 24분 3-0 승리에 췌기를 박는 알바레스의 골을 어시스트한 메시는 대회 3호 도움으로 이 부문 역시 공동 1위로 도약하며 기록을 또 추가했다.

그는 월드컵 통산 11골 8도움으로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 축구 통계 전문 업체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6년 이후로는 최다 타이 기록이다.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호나우두(브라질), 게르트 뮐러(독일)가 종전 기록 보유자들로, 메시는 ‘전설’들과 또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아울러 메시는 1966년 이후 월드컵 본선 총 4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최초의 선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그는 2006년 독일 대회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경기, 이번 대회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경기, 네덜란드와의 8강전, 그리고 이날 준결승전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올렸다.

이제 19일 열린 결승전에 나서면 마테우스를 앞질러 월드컵 최다 출전 단독 1위에 오르게 되며, 공격 포인트를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도 따라올 것이다. 물론 그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승 트로피’일 것이다. /연합뉴스

펠레  
마라도나 이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마지막 목표 월드컵 우승컵  
19일 결승전에 달려  
11골·8도움  
대기록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리오넬 메시가 13일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개 떨궜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37세 크로아티아 ‘중원 사령관’  
마지막 월드컵 조국 4강 이끌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세계 축구를 주름잡던 많은 스타가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거머쥐고 그해 발롱도르까지 차지한 크로아티아의 ‘중원 사령관’ 루카 모드리치(37·사진)도 그 중 한 명이다.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0-3으로 완패하며 결승에 오르지 못한 채 3·4위전으로 밀려났다.

이번 대회 8강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을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준결승에 진출한 크로아티아에선 아쉬운 결과였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준결승전이 성사되면서 양 팀 주장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와 모드리치 중 누가 ‘라스트 댄스’를 결승전에서 맞이하게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메시가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끈 사이 모드리치는 웃지 못



했다. 일본과의 16강전, 브라질과의 8강전 모두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며 체력이 고갈된 크로아티아는 이전 경기들과 같은 기량을 보이지 못한 채 메시지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공세에 시달렸고, 결국 후반 24분까지 3골을 허용하며 완패했다. 선발로 출격했다가 패색이 짙어진 후반 막바지

교체돼 나가며 고개를 떨궜던 모드리치는 벤치에 앉아서도 고개를 숙인 채 패배를 곱씹었다. 경기를 마치고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드리치의 ‘마지막 춤’은 전혀 초라하지 않았다.

4년 전 크로아티아가 사상 첫 월드컵 결승 진출과 준우승을 이룰 때처럼, 이번 대회 4강에 진입한 것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월드 클래스’ 기량을 발휘한 모드리치가 있기에 가능했다.

인구 400만 명을 조금 넘는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축구에서만은 세계 정상에 설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그의 덕분이었다.

모드리치는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가 치른 6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섰는데, 37세 이상 선수가 단일 월드컵 6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건 앞서 역대 3명 뿐이었을 정도로 드문 기록이다.

니우통 산투스(브라질·1962년), 디노 초프(이탈리아·1982년), 피터 실턴(잉글랜드·1990년)의 뒤를 모드리치가 이으며 베테랑의 저력을 뽐냈다.

준결승전을 마치고 모드리치는 낙담한 동료들을 격려하고, 메시 등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축하하며 인사를 나누는 폭죽도 보였다. /연합뉴스

## 벤투, 16강 꿈 이루고 한국 축구와 동행 마무리

13일 포르투갈로 떠나

월드컵 16강 진출의 과업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조국 포르투갈로 떠나며 한국 축구와 4년 4개월 동행을 마무리했다.

벤투 감독은 이날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벤투 감독은 두바이를 경유해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간다.

이로써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8월 23일 부임한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간의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벤투 감독은 출국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SNS를 통해 한국 축구 팬과 국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성원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선수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 자세와 태도에 특히나 감사드립니다. 선수들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을 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능력이었다, 이는 우리를 팀으로써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또 “이제 한국 축구의 무궁한 발전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포르투갈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지원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떠나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며 우리 선수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썼다. 벤투 감독은 단일 임기 기준 대표팀 최장수 사령관 신기록을 세우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한국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려놨다.

200여명의 팬들이 출국 3시간여 전부터 공항에 와 붉은 대표팀 유니폼 등을 들고 뜨겁게 환송했다. 벤투 감독이 나타나자 포르투갈어로 ‘오블리가두’ (감사합니다), ‘파봉’ (최고다) 등을 외치며 인사했다. /연합뉴스